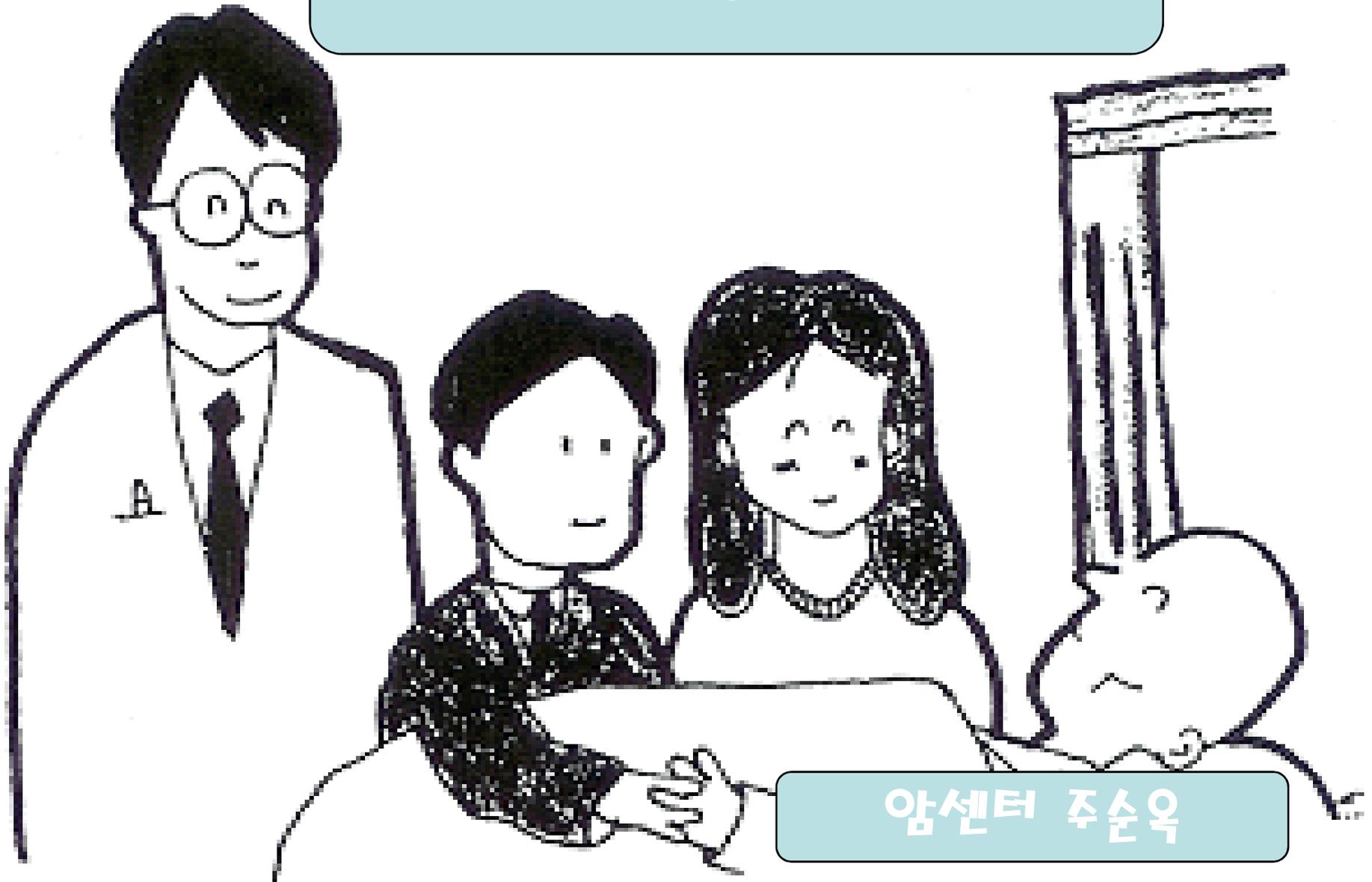


호스피스환자 간호



암센터 주순옥

호스피스란 ?

- 호스피스는 죽는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돌보는 것이다.
- 호스피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돌보는 것이다.
- 환자의 가족들에게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.

호스피스의 철학

- 남은 생을 충만하게 살도록 돕는 일
-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며 죽음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받아드리는 것
- 삶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키지 않습니다.
- 신체적, 사회적, 심리적,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.

호스피스 간호의 대상자

- 임종 **6**개월 이내로 예견된 말기 환자
-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
- 통증 및 증상완화를 위한 비치료적 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
-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
- 말기환자를 둔 가족

간호하는 사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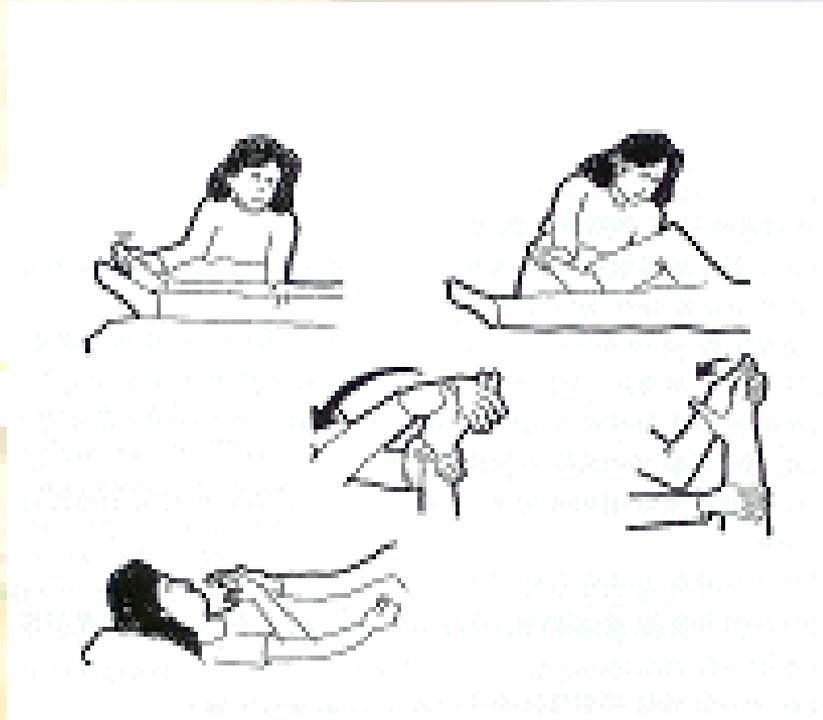
- 죽음이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일은 가족 모두의 인내가 필요합니다.
- 환자가 좌절에 빠져있는 경우 간호하는 사람은 환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 - 화나고 적개심을 나타내면 좌절에 빠져있을 수 있으므로 솔직하게 말하도록 달래야 합니다.
- 환자를 돌보는 사람도 쉬어야 합니다.
 - 주위사람과 교대하여 지치지 않도록 합니다.
 - 한 사람이 모든 일 다 할 수는 없습니다.
 - 최소 **6**시간은 자고 환자가 잠든 사이 낮잠도 자야 합니다.
- 환자와 가족에게 종교단체, 신앙심은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됩니다.

신체 간호(목욕)

- 매일 목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- 목욕을 아침에 하면 낮 동안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.
- 목욕 **1**시간 전에 진통제를 투여한 후 통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니다.
-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감각을 갖고 있으므로 마사지의 강도를 물어 보십시오.
- 목욕을 할 수 없으면 매일 얼굴, 팔, 등, 팔꿈치, 생식기 부위를 씻어 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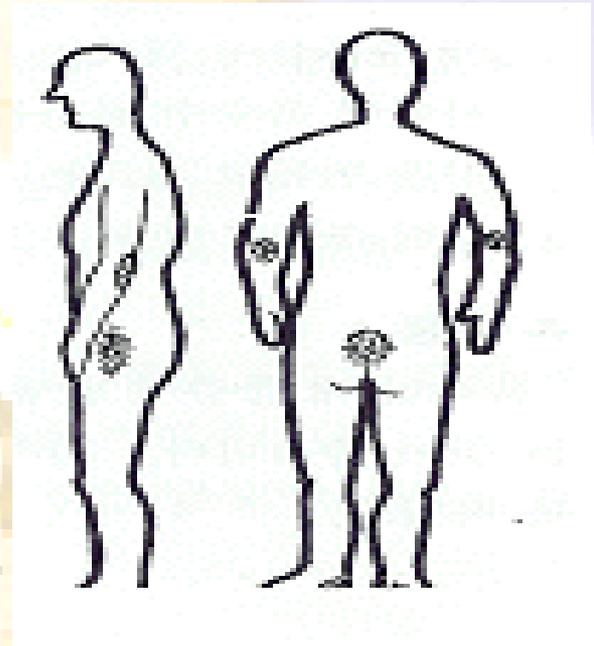
신체 간호(운동)

-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목욕 후 팔과 다리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.
- 환자의 팔, 다리를 운동시키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도록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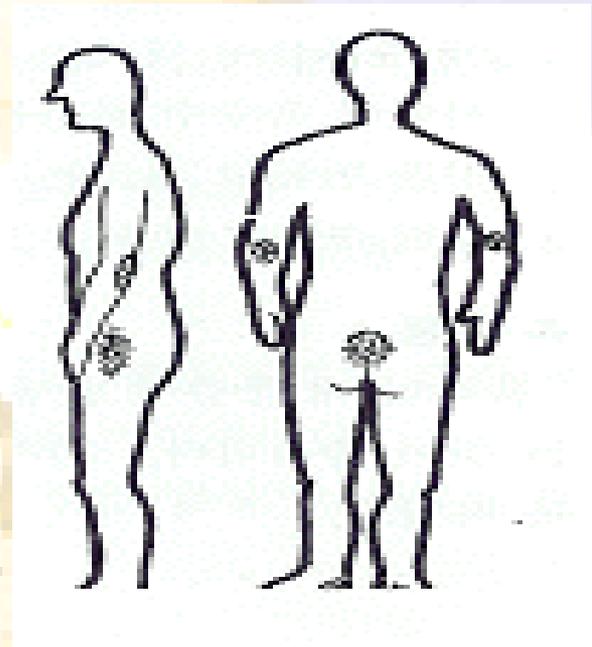
신체 간호(피부간호)

- 피부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
- 욕창은 장기간 누워 있는 환자에게 발생
- 욕창이 발생하는 부위를 매일 살펴봐야 한다.



신체 간호(욕창예방 방법)

- 자주 자세를 변경
- 움직일 때 편하도록 진통제 복용
- 옆으로 누일 땐 베개 이용
- 피부는 깨끗이 건조
- 침대는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
- 붉어진 피부는 마사지를 살살
- 압력을 받는 부위는 하루 한두번 로션을 발라줍니다.
- 압력으로 피부가 갈라지면 치료 방법을 의료진 상의합니다.



신체 간호(구강간호)

- 규칙적인 돌봄은 통증을 예방, 식욕 개선, 식사를 잘하게 해줍니다.
- 구강 간호에 필요한 것
 - 부드러운 칫솔, 치약, 찬물, 작은 타월, 바셀린, 마른 옷
- 구강간호 방법
 - 가능하면 앉은 자세로 환자의 입은 부드러운 칫솔로 하고 린스는 찬물로 한 다음 가글액 사용합니다.
 - 구강간호를 한 후 바셀린이나 보습제를 입술에 발라줍니다.
- 구강간호 시 유의 할 점
 - 목구멍 너무 뒷쪽으로는 칫솔질을 금합니다.
 - 평평히 눕거나 삼킬 수 없는 환자는 구강 간호를 실시합니다.
 - 입안에 통증이 심해지면 처방을 받은 후 통증 조절을 합니다.

신체 간호(식사 방법)

- 질병을 앓는 동안 음식섭취는 특히 중요합니다.
- 식욕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.
- 호스피스 환자의 대부분은 식사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.
- 음식물의 선택은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합니다.
- 식사를 한 후 휴식을 취하게 하고 소화 증진을 위해 침대머리를 높입니다.
- 오심이 심한 경우는 의료진과 상의 후 진토제를 식사 전에 복용합니다.

신체 간호(호흡이 가빠질 때)

- 환자가 심하게 아파질 때는 폐로부터 호흡하는 과정이 어려워집니다.
- 이때 가끔 빠른 호흡을 일으킵니다.
- 산소량이 적어지면 피로감, 불안, 호흡이 가빠짐을 느낍니다.
- 환자를 일으켜 등에 기대게 하십시오.
- 침대 머리를 올려 베개를 머리쪽으로 놓아 주십시오.

소변관리(뇨백 관리)

- 침상에 누운 환자에게는 적절한 변기, 소변기가 필요하지만 소변을 보기 어려운 경우 뇨배출을 위해 카테터를 삽입하게 됩니다.
- 카테터 설치 후 뇨백 사용시 주의 사항
 - 항상 카테터나 뇨백을 만질 때는 손을 씻습니다.
 - 카테터가 삽입된 신체 주입부가 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.
 - 뇨백은 하루에 한번씩 비워야 합니다.
 - 뇨백은 항상 카테터의 위치보다 낮게 있어야 합니다.

대변관리

- 배변 습관은 모두가 다를 수 있지만 호스피스 환자의 경우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변비 예방법이 중요
 - 규칙적인 식사
 - 매일 한번씩 환자를 변기에 앉힙니다.
 - 물의 제한이 없으면 2ℓ를 마십니다.
 - 주스, 이온 음료를 충분히 마십니다.
- 설사
 - 설사도 종종 있습니다.
 - **3회 이상 물변을 보게 되면** 의료진과 상의합니다.
- 설사시 주의 사항
 - 변기를 환자에게 밀착시킵니다.
 - 대변을 본 후 항문 주위를 물로 씻고 피부에 로션을 발라줍니다.
 - 환자는 에너지원으로 주스, 맑은 미음 등을 마실 수 있습니다.
 - 너무 허약한 경우는 변기, 의자 등을 사용합니다.

죽음을 맞이하는 경우

- 사람의 생명은 한계적이어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.
- 환자의 어려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관심과 위로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.
- 죽음에 대해 올바른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죽음을 예고하는 신체적 신호
 - 죽음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피부가 매우 차고(특히 팔, 다리) 냉기가 있고 푸르스름해지며, 호흡이 약하며, 움직임이 적고 감각이 없어지고 환각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.
 - 이러한 현상이 왔다 하여 죽음이 몇 시간 앞에 왔는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.
 - 환자의 변화는 심리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 -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스폰지로 목욕을 해주고 젖은 찬물로 입술을 적셔줍니다.
 - 환자의 손을 매우 의미있게 잡아 줍니다. (나 여기 있어요!)
 - 환자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도록 합니다.
특히 환자에게 실망을 주는 말은 해서는 안됩니다.

“Mighty Hallym”

